

제2회 정보통신포럼 개최



제2회 정보통신포럼이 지난달 22일 힐튼호텔 국회룸에서 '21세기 지식 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인의 역할과 책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서정욱 과학기술부 장관은 "지식·정보사회가 될 21

세기에는 지력(知力)의 원천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따라서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투자 증대, 과학기술혁신 시스템 구축 등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남궁 석 정보통신부장관을 초청, 제1회 포럼을 개최한 바 있는 우리 협회는 이번에 서정욱 장관을 초청한 가운데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향후 정보통신포럼 운영을 통한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이날 포럼은 서정욱 장관, 정장호 회장, 손용기 부회장을 비롯, 회원사 대표 및 정보통신과 과학기술분야의 주요 인사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제3회 포럼은 배순훈 전 정보통신부장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다음달에 개최될 예정이다.

제 1차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 수여식 개최



전자상거래시 개인정보 유출 및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민간 자율적으로 마련한 제 1차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서 수여식이 지난달 19일 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우리 협회 인터넷 모범상점 인증위원

회는 인터넷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쇼핑몰 중 18개에 대한 소비자 이용시 안전성 여부를 심사한 결과 7개 인터넷쇼핑몰을 모범상점으로 인증키로 했다고 밝히고 이들 쇼핑몰에 대해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서를 이날 수여했다.

이번 심사는 인터넷모범상점 인증업체 심사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매출실적이 있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신청접수받은 18개 사업자에 대해 이뤄졌으며, 최종적으로 7개 사업자가 인증서를 수여받게 되었다.

이와 관련, 협회 조영훈 전자상거래팀장은 "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전자상거래의 비대면 거래로 인한 신뢰부족과 불안감 해소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인증서를 수여받은 인터넷쇼핑몰은 롯데백화점의 롯데인터넷백화점, 선주컴퓨터의 인터넷쇼핑몰, 세스컴의 매일경제인터넷쇼핑몰, 에스케이산업의 인터넷뮤직랜드, 인터파크의 인터파크, 종로서적의 인터넷종로서적, 한솔CSN의 한솔CS club 인터넷쇼핑몰 등 7개이다.



협회동정

제 1회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정보통신분야의 벤처창업 붐 조성과 신규고용창출을 위해 마련된 제1회 「정보통신 벤처창업경진대회」가 40명의 예비벤처인을 배출하고 벤처 등용문으로서의 첫발을 내딛었다.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우리 협회 창

업지원팀이 주관하여 지난달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총 400여편의 제안서 중 40편이 입상작에 올라 상금과 상이 수여되었다.

남궁 석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상한 이날 행사에서 영예의 대상은 김승돌 씨의 '전력선을 이용한 초고속 정보통신 전송장치'가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CORBA 기반망 및 서비스 통합관리 플랫폼'에 돌아갔다.

한편, 입상자들은 법인설립에 필요한 창업자금과 시제품개발비, 지적 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허출원 등 각종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한·스웨덴 정보통신 발전 및 사업협력 세미나 개최



우리 협회는 지난달 21일 정보통신부와 주한 스웨덴 대사관 및 스웨덴 무역대표부가 공동 주최하고, 우리 협회 및 4개기관이 공동주관한 「한·스웨덴 정보통신발전 및 사업협력 세미나」가 한

국정보통신기술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한·스웨덴 양국은 정보통신사업 기본계획 및 공동 프로젝트 수행 등 향후 양국의 민간업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 프로젝트 개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입장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행사는 스웨덴 IT산업 개발 및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IMT-2000 스웨덴 개발사례 및 한국과의 협력강화, 인터넷과 뉴미디어의 통합동향 등의 주제발표와 한·스웨덴 정보통신사업협력을 위한 질의 및 토의가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협회의 손용기 부회장을 비롯, 정보통신 유관단체와 정보통신업체 중 인터넷 유무선 통신, 부품, 뉴미디어, 소프트웨어 및 기타 IT 관련 주요업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분과위원회 개최**

이동전화 불법복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민간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우리 협회는 지난 1일 협회 회의실에서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전화 불법복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별정통신사업자협의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이동전화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99년 9월에 발생하였으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자별로 이동전화사업자와 개별 협의중에 있어 아직까지 처리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동대응을 자제하고 협상추이를 좀더 관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갈

이 하였다.

위원들은 만일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통신위원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국내 착신호 공동영업 방안에 관해서는 정부가 국내 착신호의 기준점을 어디로 규정하느냐에 따라 공동영업 가능여부가 결정되므로 공동영업 방안 마련에 앞서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제7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 개최



제7회 정보통신산업 전망 심포지엄이 우리 협회 주최로 지난달 27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서비스 시장변화와 전망, 인터넷 상거래 현황과 전망 등 정보통신 관련 각 부문 시장 현황과 향후 전망을 알아보는 자리였다.

먼저, 우리 협회 최영섭 조사연구부장[정보통신산업의 현황과 전망]이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기기, 소프트웨어를 포괄하는 정보통신산업은 올해 말까지 102조5764억원 규모를 형성, 100원조시대를 열어가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내년에는 114조7809억원으로 성장한 뒤 2002년에는 142조605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조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향후 정보통신서비스시장이 기술변화와 정책변화 두 가지 측면으로 서비스간 통합 및 경계소멸, 방송과 통신의 융합,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 여러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터넷 상거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인터파크의 최상국 이사는 “최근 인터넷 쇼핑물 등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가격과 거래구조 등에 대한 전통적 유통업의 체질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전자상거래의 기본적 환경제공을 위해서도 망 고속화와 물류망의 전산화, 네트워크화, 통신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